

민선 8기 지역산업정책 성과 관목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 산업기관장으로 종종 지금 광주의 산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민선 8기 산업정책의 성과는 무엇인가 등 여러 사담들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는 비교적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선 잘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민의 피부에 잘 되고 있는 것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고 뭐가 잘 안되는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분석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의 시정 평가에 산업정책은 빼 버리기도 한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임에도 여론에선 후 순위로 다뤄진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그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경제 침체와 국가의 경제 산업정책 부실로 경제전반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광주시의 경제 산업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25개 공약과 37개 세부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 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분야에서는 2023년 5월 반도체 데이터 2대 도전산업, 모빌리티·인공지능·문화콘텐츠·에너지·메디헬스케어 등 5대 전략산업, 광융합·가전 스마트부리 2대 기반산업으로 광주시 9대 대표산업 육성전략을 내놓고 기술 실증 인재육성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지역산업 육성 추진체계로는 10개 산학연협의회를 기초로 지자체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망라된 지식학연협의체를 거버넌스체계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강한 지역산업 협력체제다.

주요 성과 국가AI데이터센터 개시, 163개사 협약·10개사 등 국내외 인공지능 선도기업·기관 유치를 이뤄냈고 AI 2단계사업 정부예산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중심도시에서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은 역사에 남을 성과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육성 새정책 레전드50+ 사업에서 타지역 1개와 달리 2개 사업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1200억 원이 기업지원에 투자된다. 광주는 광융합·가전·스마트부리 산업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있고, 송암산단 혁신지구가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다.

5000억 원 창업펀드 조성과 광주역 창업 벨리가 확충되고 있다.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창업제품 기술혁신제품 실증사업이라는 실증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중앙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기업 6개사가 CES 2024 혁신상을 받았고, 최근 에스오에스랩은 광주에서 4년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쾌거를 만들어 지역 창업벤처기업들에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2023년 대우 위니아 부도로 촉발된 지역경제위기에 대한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신속대응으로 최단기간 내 중기부 위기관리지역지정 등으로 중소기업 위기 대응 성과를 만들어 낸 것도 큰 성과였다.

이런 가운데 2023년도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평가에서 광주시는 A등급, 2024년 스마트특화산업 평가에서 S등급, 중소기업위기대응 전국 최우수등급 등의 빛나는 성과를 이뤘다.

지역소멸, 지방약화라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산업 육성에서 민선 8기 광주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으로 환경은 변하고 국내의 산업기술 경쟁은 치열하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산업과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힘은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강력한 경제 리더십, 지역 산업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치열한 속도전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경제에도 믿음이라는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 민선8기 광주 산업경제정책이 성공하도록 지역경제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을 이뤄 나가기를 희망한다.

社說

무등산 정상부 복원, 하루빨리 이뤄져야

광주, 보전 등 추진 과제 제안

무등산국립공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정상부를 복원해 자연 보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공원이 자연자원 보전과 국민을 위한 휴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은 꼭 필요하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등산권 기초자치단체까지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무등산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군부대와 방송탑 등 정상부 시설물로 지형과 고유생태계가 훼손됐고 외래생물의 유입으로 무등산 고유의 자연자원 보전기능도 약화된 상태다. 특히 천왕봉 정상부는 군부대 주둔 후 고도가 1187m에서 1183m로 4m 낮아졌고, 탐방로를 중심으로 돼지풀, 애기수염, 환상덩굴 등이 확산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2.1%에 달해 14.9%인 국립공원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능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방문객 비중이 크고, 타지역 방문객 비중이 작다는 것도 문제다. 무등산의 경우 전체 방문객 대비 수도권 유입 비율이 10.4%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낮다는 것이 광주연구원의 설명이다. 23.5%에 이르는 내장산과 18%대를 차지하는 지리산과 월출산에 비해서도 턱없이 작은 실정이다. 주된 방문동기도 등산 등 건강증진이나 휴식에 치중돼 있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전체적인 만족도 또한 낮다고 한다. 휴양·편의 시설의 비중이 작고, 접근성도 낮은 형편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시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국립공원 또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관계기관은 무등산이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이 조화된 관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공원의 기능을 되살리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장 쉬운 면에서도 꼭 필요한 길이다.

'탄소흡수' 맹그로브 재배시험 성공하길

신안군 시험 연구 착수

신안군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Blue Carbon) 대표수종인 '맹그로브' 재배 시험 연구에 돌입했다. 군은 최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현지 적응시험을 위해 일부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체와 베트남산 400개체 등 총 520개체를 심었다. 현지 식재 후 생장 특성, 지역 갯벌과 기후환경에서의 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란 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동군 맹그로브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인 곳에서만 생육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협소하므로 외래식물로서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도 없다고 한다. 맹그로브가 우리나라 갯벌과 섬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탄소흡수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열대 지역 해안이나 강 하구 등에서 주로 자라는 맹그로브는 바닷물에서도 적응해 생존할 수 있다. 특히 맹그로브

숲은 동남아시아 해안가에 뿌리를 내려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고 해변 침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해남과 강진, 완도 등 남해안에서 맹그로브를 시험 재배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묘목 116그루를 가져다 심었는데 실패로 끝났다. 일부 나무는 겨울까지 자라기도 했지만, 한파를 견디지 못해 모두 고사했다고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전남 해안 지역 기온은 빠르게 상승해 맹그로브 숲 조성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신안 도초도 해안은 맹그로브가 무성하게 숲을 형성한 지역과 염분 농도가 비슷하고 바람이 적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 생육 적응 시험의 적지로 꼽힌다.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빠르게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상황에서 맹그로브 조성은 훗날을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최근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신안군의 맹그로브 재배 시험 연구가 성공을 거두길 간절히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6일(현지시각)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카쿠페미 항구에서 파라과이 마약단속국 요원이 마약탐지견과 함께 설탕 포대들을 조사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벨기에로 향하는 선박의 설탕 선적품 속에서 4톤 이상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서석대

남도의 대표 여름축제인 무안연꽃축제가 다음 주말에 열린다는 짙막뉴스가 지면에 실렸다.

초록빛 연잎 사이로 맑은 자태를 드러내며 꽃망울을 틔우는 화산 백련을 기억에서 소환하니, 가까이 지내는 암주스님과 몇 해 전 나눴던 연꽃 이야기들이 떠오른다.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 하여 화지군자(花之君子)라 이른다.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주돈이가 지은 '애련설(愛蓮說)'에서 유래했다.

주돈이는 연꽃을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며, 맑고 잔잔한 물에 씻겨 청결하되 오염하지 않으며, 줄기 속은 비었되 겉은 곧으며,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지며/..."

7월이면 피기 시작해 한여름이면 연지(蓮池)에 불국토를 만드는 연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라는 말처럼 제각기 다르고 그 종류만도 250여 종에 이른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가시연꽃은 널따란 잎이 뾰족한 가시로 가득한데, 이를 뚫고 화려한 꽃이 솟아난다. 이르게 피는 수련은 밤에는 꽃잎을 움켜쥐고 '잠자는 연'이라 불린다.

동그런 쟁반을 닮은 연꽃도 있다. 빅토리아수련이다. 꽃이 어찌나 크지 작은 아이가 앉을 수도 있다고 한다. 빅토리아수련이 세상을 보는 시간은 단 3일. 흰색으로 피었다



가 차츰 진분홍빛으로 변해 사흘만에 물 아래로 얼굴을 감춘다. 이외에도 홍련, 백련, 왜개연, 대하연, 노랑어리연이 있다.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려 피었다고 한다. 또 극락세계를 신성한 연꽃이 자라는 연못이라고 생각해, 절집에 크고 작은 연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무안 일로외에도 연꽃으로 이름난 곳이 여럿 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아련한 사랑이야기가 스민 부여 궁남지, 남

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있는 양평 세미원, 조선의 농학자 강희맹 선생이 명나라에서 연씨를 가져와 이곳에

심었다는 시흥 관곡지 연꽃파크 등이다. 화산 백련지의 화양연화는 7말8초다. 이번 주말 마실은 무안으로 정해도 괜찮을 듯하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조 섭섭치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 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닦아거나, 진흙에 물들지 않고 외려 더러움을 정화하는 연꽃을 감상하면서 서정시인의 '연꽃만나고가는바람같이'를 읊조리는 것도 여름날의 낭만을 만끽하는 방법이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